

VI. 스웨덴의 산업 정책

1. 스웨덴의 산업 현황

스웨덴은 20세기를 거치며 목재, 철광석 등 단순 원자재 가공업 위주의 경제에서 벗어나 고도의 기술과 공정을 필요로 하는 제조업 국가로 탈바꿈하였다. 금융위기로 1991~1993년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으나, 1994년부터 긴축재정 정책을 통해 재정건전화, 수출증대, 내수 회복을 꾀하였으며 1990년대 중반 이후 낮은 물가 상승률과 함께 3% 내외의 안정적인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IT, 의약 등 연구개발을 수반하는 기술집약적 산업이 경제의 중심 분야로 성장하였는데, 특히 정보통신기술(ICT) 투자, 개인컴퓨터(PC) 보유, 인터넷 망 및 휴대전화 사용 등의 부문에서 세계적인 선도국가로 발전하였다.

스웨덴은 선진화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1970년 이후 스웨덴 산업 구조에서 1차 산업 및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감소한 반면, 서비스 부문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GDP의 약 70%에 육박하고 있다. 특히 높은 사회 보장 수준을 포함하는 공적 서비스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배영자, 2002). 제조업은 거대 기업에 의해 주도되고 있어 전체 제조업 기업수의 0.1%를 차지하는 종업원 1,000명 이상 규모의 기업이 전체 제조업 인력의 절반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1990년대 이후 전개된 본격적인 자유화 정책의 영향으로 많은 외국기업이 스웨덴에 유입되고 스웨덴 기업의 해외 진출도 증가하였는데, 제조업 분야에서 생산된 물건 가운데 약 3분의 2는 해외로 수출되고 그 중 엔지니어링 분야가 전체 수출의 약 50%를 차지한다.

볼보(Volvo, 자동차), 사브(Saab, 자동차), 스카니아(Scania, 중장비 제조업체), 일렉트로룩스(Electrolux, 생활가전업체), H&M(의류), IKEA(가구) 등이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대표적인 스웨덴 기업이며, 특히 스웨덴은 전 세계 중장비 시장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표 VI-1> GDP 구성에서 각 산업의 비중

업종	제조업	농림수산업	건축업	무역업	보건의료업	교육연구업	금융업	기타
%	20	2.3	10	18.6	19.4	8	11	11.7

출처: 스웨덴통계청(2011)

2. 스웨덴의 산업 특징

스웨덴의 산업구조의 가장 큰 특징은 대외교역에 대한 높은 의존도이다. 적은 인구와 높은 인건비에 따른 산업구조 재편으로 신기술 및 원천기술개발에 주력하는 한편, 이의 실용화 및 대량생산은 저렴한 인건비와 생산기반을 보유한 해외국가에 의존하는 산업구조가 형성되었다. 이에 따라 기술협력 및 합작투자를 통한 해외진출 성향이 높은 편이다. 또한 각종 원천기술의 탄생지인 스웨덴은 기술혁신의 본고장에 걸맞게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오고 있으며, 이에 힘입어 세계에서 가장 창의적인 연구개발을 주도하는 국가로 주목받아 왔다.

3. 스웨덴의 산업 정책

스웨덴의 산업정책은 전통적으로 형평성에 대한 고려를 바탕으로 노동 부문의 고용 안정을 위해 정부가 민간 기업의 활동에 개입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극심한 불황을 겪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성장이나 산업경쟁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산업구조의 조정이 이루어졌다(배영자, 2002).

스웨덴 산업정책의 전반적인 기조는 특정 산업에 대한 선별적인 보조금이나 조세 혜택 등을 통한 지원방식이 아닌 산업 인프라, 교육체제, 규제제도 쪽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 중 지역발전, 교육 및 노동력 재훈련,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분야를 특히 강조하고 있다. 국가 지원프로그램 중 고용이나 지역발전에 대한 지원에 비해 산업부문에 대한 지원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다.

스웨덴은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 투자를 통해 나라 전체가 성장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성장을 위해서는 경제적 번영과 완전고용이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투자는 기업의 독창력과 산업 경쟁력 및 지역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자극제이며, 세계화는 경쟁력을 증가시키고 산업과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한 기반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1) 기업 육성

중소기업은 총체적인 고용에 매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새로운 기업에게도 성장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스웨덴 정부혁신시스템청(The Swedish Governmental Agency for Innovation Systems : Vinnova, 산업 및 사회의 수요중심 연구에 자금을 공급, 혁신

연구개발을 지원), 스웨덴 경제지역성장청 (Sweden Agency for Economic and Regional Growth, 신기업의 설립 및 발전, 성장 지역의 창출을 지원), 지식재단 (Knowledge Foundation, 대학과 고등교육기관의 연구 환경을 개선 지원), 스웨덴 투자청 (Invest in Sweden Agency, 자동차/기업서비스/자본투자/청정기술/금융서비스/정보통신기술 등의 부문을 중심으로 스웨덴 내 외국인투자를 유치), 스웨덴 에너지청(Swedish Energy Agency, 관련 업계/지자체 및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개발), 산업펀드(The Industrial Fund, 혁신적 중소기업에 개발자금이거나 사업확장 자금 등의 장기금융을 제공) 등의 기관이 스웨덴 내에서의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1) 중소기업

EU는 2008년 "중소기업 최우선 원칙(Think Small First)"에 입각하여 중소기업 유관 제반 정책의 혁신을 도모하는 중소기업정책 구상을 마련하고, 이를 "중소기업법 (Small Business Act)"이라고 이름 지었다. 성장 촉진과 고용 창출을 위해 중소기업을 진흥하는 유럽연합의 큰 틀 아래 정책을 펴고 있다. 현재 스웨덴의 중소기업은 전체기업수의 99.7%, 부가가치의 45.7%, 민간부문 고용의 68.1%를 차지하며, 2011년에 기업수는 2.3%증가, 부가가치는 7.1%증가, 고용은 1% 증가하였다(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관, 2011).

(2) 창업 지원

스웨덴은 창업 절차와 창업 비용의 간소화를 통하여 예비 기업인들의 창업을 독려하고 있는데, 세계은행(World Bank)의 국가별 창업 용이성(ease of starting business) 조사(직원 수 50명 이하 기업 창업시 수반되는 법적, 행정적 장애수준 평가)에 따르면, 스웨덴은 2007년 호주·캐나다에 이어서 2위를 차지하였고 최근은 2012년 13위 정도의 순위를 지키고 있다(World bank, 2012). 스웨덴 내 창업을 위한 최소 자본금은 법인은 약 7,550불, 지사는 최소자본금이 아예 필요가 없다. 회사등록청(Bolasverket)에 회사를 등록하는 비용도 법인은 약 330불, 지사는 약 300불 정도이다.

(3) 보조금 및 자금 지원

스웨덴은 그간 시행된 여성 기업인 지원 프로그램을 2010년부터 4년 연장하였다. 이 프로그램을 통한 대학 내 관련 교육 지원과 재정적 지원(약 1천만 유로)을 통해 약 86,000명의 여성이 수혜를 받았다. 또한 ALMI라는 2010년에 도입된 지역 벤처 자본 프로그램은 창업 및 기업 운영 자금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출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스웨덴 정부혁신시스템청의 VINN-nu Programme은 18-30세 예비 창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20개 기업을 대상으로 창업 자금 명목으로 33,000유로를 지원한다.

(4) 정보 제공

2010년 Swedish Companies Registration Office, Swedish Social Insurance Agency, National Tax Board, Swedish Customs로 구성된 Public Bodies Collaboration Group이 설립되어 창업 희망 예비기업인들을 지원하고, 현 기업인들에는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 지역 발전

클러스터란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요소 시스템을 말한다. 회사의 각각의 요소를 연합함으로써 산업 경쟁력이 결정되며, 클러스터를 통해 전문 분야의 높은 수준의 전문 기술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러한 클러스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산업과 정부가 협력하고, 지방과 지역 정부 간의 협력이 중요하다. 산업단지의 발전이 지역사회의 발전과 보조를 맞춰야 하며, 지속적인 산업단지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인프라를 구성해야 한다. 지역 사회는 산업단지에 필요한 교통, 문화, 주거, 통신 인프라 등을 구축해야 하며, 산업단지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구성 요소로서 역할이 강조되어야 한다.

롤레오의 페이스북 데이터센터와 지역발전

2011년 12월 Facebook의 스웨덴 투자발표 이후 롤레오 지역은 현재 Facebook 최초의 유럽 데이터 센터 구축 공사가 한창이다. Facebook은 청정 에너지원 접근 유리, 좋은 지형, 고급 인력, 우수하고 열정적인 회사분위기, 우수한 자연 냉각기능 이외에도 저렴한 전기요금과 스웨덴 정부와 롤레오 지역의 투자인센티브 등을 이유로 스웨덴을 선택했다. 스웨덴 투자청에서는 Facebook의 투자유치를 위해 스웨덴 정부의 지원금 지원(1억300만 크로나 지원/약 1600만 달러)하는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벌써부터 롤레오지역은 Facebook 효과를 톡톡히 보고있다. 글로벌 데이터센터 지원기업 3개사가 롤레오 지역에 지점을 설립 중이고, 인근의 롤레오 공과대학의 지원 학생 수는 전년 대비 18%가 증가하였다. 뿐만 아니라 롤레오 사이언스파크의 입주사가 가열화되고 있으며 새로운 인프라 투자로 스웨덴 국내외 인터넷 트래픽 용량 약 두 배 증가하는 등 예측 이상의 특수를 누리고 있다. 이런 롤레오 페이스북 데이터센터 유치 사례는 산업단지화 및 지역사회의 동반 발전의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이수정, 2013).

3) 교육 및 노동력 재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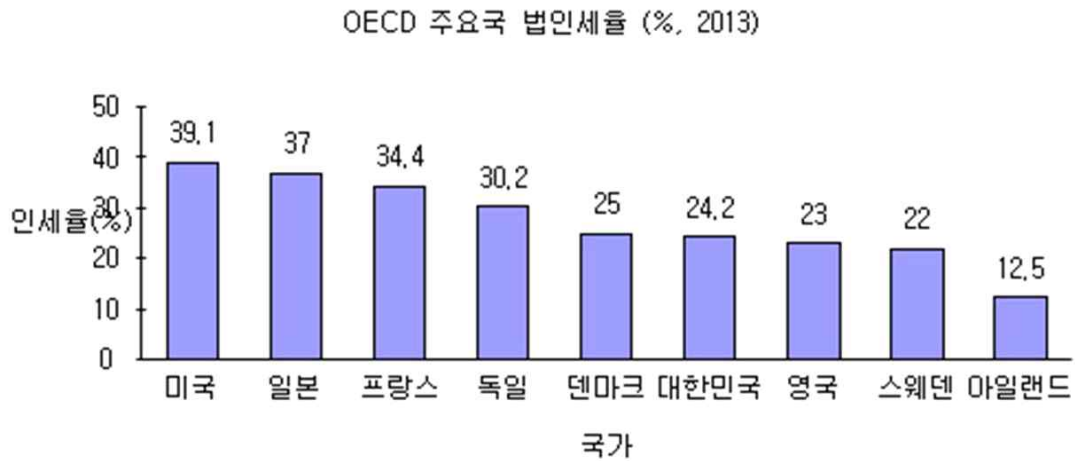
스톡홀름 고용청 사무소에서는 한 달에 두 번 구직자들이 각 직업 전문가를 만나 고용청에서 제공하는 직업 코칭을 받는다. 또한 스웨덴교육청(Swedish national agency for education)이 주도하는 Entrepreneurship 진흥 프로그램 같은 프로그램은 교육기관 내 창업 관련 과정 개설 지원 등을 통해 관련 교육을 제공한다.

4) 산업 환경 조성

(1) 경제적 환경 조성

스웨덴의 조세는 1990년대 중앙정부 지출이 GDP의 75%까지 육박했을 정도로 고부담이었다. 그 결과 IKEA의 본사가 덴마크, 스위스, 네덜란드로 이동하고 고소득자들의 해외로의 이동이 증가하기도 했다. 이에 대응하여 스웨덴은 전반적인 정부지출을 줄이고, 특정 부문에 조세혜택 주기보다는 유리한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목적으로 세율을 전반적으로 낮추는 정책을 시행했다. 28% 수준이던 법인 세율을 올해 22%로 인하하였으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서도 낮은 편이다.

[그림 VI-2] OECD 주요국 법인세율



출처: OECD(2013)

(2) 산업생산성을 높이는 복지제도와 수평사회

스웨덴의 근로 환경은 일반적으로 열려 있고 또 격식이 없는 편이다. 상관이더라도 편하게 이름을 부르고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피력한다. 뿐만 아니라 탄력시간 근무제가 적용되고 양성 평등을 추구한다.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과 강력한 노조로 인해 근로자 권리에 대한 보호가 철저하며 근로자들의 발언권이 강한 편이다. 또한 선진적인 평생교육 시스템을 통해 모든 임직원이 직업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자기계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런 수평적인 조직구조와 잘 정착된 복지제도는 적은 근무시간에도 불구하고 높은 산업 생산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리카르드 라게르베리·엠마 란데케르, 2011).

참고문헌

배영자(2002), 『스웨덴 혁신정책과 동향』,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스웨덴 대외홍보처(2011) -This is Sweden: 리카르트 라게르베리, 엠마 란데케르
이수정(2013), 『페이스북의 스웨덴 투자 1년을 돌아본다』, KOTRA
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관(2011), 『EU 및 회원국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스웨덴 통계청 www.scb.se

세계은행 www.worldbank.org

OECD www.oecd.org